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복합쇼핑몰 조성 '속도'

어등산단지, 내달 중순 공고 3차 공모... 향후 적절성 검토 방식터 사업대상자 내달 확정

광주시에 대표 '꿀잼도시'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복합쇼핑몰 유치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7월 중순께 제3차 공모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제3차 공모는 광주도시공사 소유한 공유지에 기업이 투자사항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안서 접수→ 검토→공모 지침 마련 및 공고→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이 공모 방식은 새만금 관광명소화사업,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제주 모슬포남향 숙박시설 건립사업 등 전국 곳곳에서 적용한 바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현재 신세계 프라퍼티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적절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사업 검토가 끝나는 7월 중순 제3차 공모 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의사를 먼저 밝힌 신세계 프라퍼티와 개발사업에 관심있는 또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경쟁을 유도, 최적의 사업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신세계와 경쟁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신세계 프라퍼티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다. 광주시는 이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복합쇼핑몰 입점 제안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상생 논의기구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유치 특별기획팀(TF)을 구성, 두 달여간 22차례의 회의를 이어나갔다. 같은 해 9월에는 유치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등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식화했다.

이에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1월 18일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더 현대 광주'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속한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접수 즉시 계획서 원본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신활력 행정협의체를 구성, 법적·행정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내 '더 현대 광주' 사업 절차와 관련, 의견수렴이 끝나는 오는 7월 중 행정 절차상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한편 사업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부터 진짜 광주의 변화를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길에도 결국 시민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동참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공직자들과 나는 시민 신뢰에 기반, 광주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부터 진짜 광주의 변화를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길에도 결국 시민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동참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공직자들과 나는 시민 신뢰에 기반, 광주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부터 진짜 광주의 변화를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길에도 결국 시민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동참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공직자들과 나는 시민 신뢰에 기반, 광주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부터 진짜 광주의 변화를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길에도 결국 시민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동참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공직자들과 나는 시민 신뢰에 기반, 광주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제2요양병원 공모 신청, 의료법인 1곳 요건 적격"

광주시 "협상 절차 등 진행"

광주시는 시립 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절차에 응한 광주 모 의료법인에 대한 선정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적격' 판단이 곧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제2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전남대학교병원이 '요양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 나섰다.

지난 5월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신청서류를 접수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이 같은 경우 재공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재공고 기간을 뒀지만, 운영 의사를 밝힌 대상의 법인 또는 개인은 없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차 공모 때 참여한 1곳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벌여 '적격'으로 판단했다.

제2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다.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위탁 사무는 노인성질환자(치매 포함)의 진료와 요양관리,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제2요양병원은 2013년 남구 덕남동에 문을 열었다. 부지 1만5385㎡·연면적 5359㎡,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196병상을 갖추고 있다. 진료 과목은 신경과·외과·재활의학과·내과 등 4개과다.

김성수 기자



6·25전쟁 제73주년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6·25 참전유공자 등이 25일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서남권 SOC확충 프로젝트 '본격 가동'

추경 통해 4억5000만원 확보 광주~영암 아우토반도 용역

전남도가 서남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남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전남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남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추진 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총사업비 2조7900억원 규모의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인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초고속도로)'과 '대불산단대교 연결 프로젝트'는 사업을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4000억원 규모의 목포 구도심과 하당·남악·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 사전검토 용역비도 3억원을 확보했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용 중인 트램은 도로의 일부에 설치한 레일 위를 운행하는 전차로 친환경적인 도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도의회에 적극 설명한 결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7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와 영암 F1 경기장까지 47km를 잇는 아우토반과 영암·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2.5km)는 용역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형 트램은 최적의 노선과 운행 방식을 검토한 후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광주 첫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광주기독병원 선정

9월1일부터 평일·휴일 24시까지

광주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광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오는 9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기관인 광주기독병원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 협상을 지난 22일 마무리하고, 사업자로 광주기독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조건 충족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광주기독병원은 9월1일부터 평일과 휴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환자를 진료하는 광주시 대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광주기독병원에 운영비·홍보비 등 경상적 보조비용으로 시비 28억8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기독병원은 나머지 경상적 사업비 5억3000여만원과 발생하는 자본적 경비 전액을 자체부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강기정 시장의 '손에 잡히는 변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이다. 최근 발생하는 어린이병원 오픈된 진료대란,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등의 위기를 맞은 소아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추진했다.

이번 광주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선정으로 지역 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최소화하고 소아경증환자 분산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로컬어린이병원·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24시 이후 발생하는 중증응급소아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어지는 지역 연결적 어린이 안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류미수광주시복지건강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성공적 운영으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전남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불법 촬영기기 점검

전남도가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장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6월부터 체전 기간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체전 담당부서, 환경부서, 경찰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22개 시·군에 분산된 전국체전 경기장 70곳과 장애인체전 경기장 38곳의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편의 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최황지 기자

정부 "지역의대 설립 고려" 발언... 전남도 "적극 환영"

"유일 의과대학 없어... 의료공백 공공의료 책임질 국립의대 절실"

정부가 지역의대 설립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 광역자치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자체의 요구가 많은 지역의대 신설 문제와 관련해 의대 정원 확충 과정에서 같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전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의료수요가 많은 노령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지방의료원과 지역병원의 의사 구인난으로 기초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있고, 공중보건의 지속 감소로 사실상 의료공백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여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지역거점 컨트롤타워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고령화와 지방의사 부족, 팬데믹 등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공공성이 담보된 국립의대를 설립해 필수 의료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남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고, 의료공백 상태에 직면한 지역에 지속 가능한 의료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황지 기자